

동양제철화학, 폴리실리콘 증설 차질

군산 제2공장 수증기 분출사고 발생 ... 인명피해 없어 6월 가동 예정

동양제철화학의 군산 소재 폴리실리콘(Polysilicone) 생산공장에서 수증기 분출 사고가 발생했다. 2월4일 오전 10시30분 군산공장 안에서 갑자기 수증기가 분출하는 사고가 발생해 직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6월 정상가동을 앞두고 신축중이던 동양제철화학 군산공장 제2공장 생산라인에서 수증기를 빼내는 벨트가 고장나면서 약 10여분간 수증기가 치솟아 근무하고 있던 직원 200여명이 공장 밖으로 긴급히 빠져나왔다.

동양제철화학 관계자는 “수증기가 분출했지만 10여 분만에 긴급조치를 취했고 인명 피해도 없었다”면서 “제2공장은 라인을 시험 가동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제품 생산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1월3일 오후 4시경 동양제철화학 위험물취급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페인트칠을 하던 인부 장모씨가 6 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져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2/04>